



사회모순 제거 선행

[illegible]

1.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글화' 움직임은 주로 교육계와 출판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한글 맞춤법'의 제정(1988년)은 한글의 체계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2. 1990년대 중반에는 '한글 전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주로 문학계와 학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글 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3. 1990년대 후반에는 '한글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는 주로 대중매체와 출판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4. 2000년대에는 '한글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는 주로 대중매체와 출판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5. 2010년대에는 '한글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는 주로 대중매체와 출판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6. 2020년대에는 '한글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는 주로 대중매체와 출판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안 그런 자란 이유를  
기 보다는 무엇보다  
기 제인의 신주로 삼아  
마음을 한데 묶을  
지혜와 용기가 있었  
을까?

고종스런  
정신으로  
탈바꿈한

한 수평적인 인간  
불간

의 아들과  
아들인

학생 및 교직원  
자

- 소집편지 발송(보통보통)  
87년 1월 1일 일요일 새벽에 예비연(병, 화상관련 3  
명)을 실시함. 전역자였던 정여사(현)를 계승으로 한  
위계별에서는 예비군 교육에 참가하여야함.  
기타 사무원 등 예비군 교육을 부류할수 있는 자는  
모두 참여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수련후 각급, 87년 6월 1  
일까지 제출함.
- 교육장소 : 관공리초등학교
- 장시간표 : 87년 6월 22일(월) - 25 (목) 4일간  
09:00-18:00  
장 소 : 87년 6월 22일(월) - 25일 (목) 4일간  
07:30-17:00  
장 소 : 동천초등학교
- 세부교육일정 : 교과과정문 참조
- 유의사항
1. 사전교육 : 예비군과, 학생증, 병역서, 증식지참  
2. 교육기간 : 87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함  
3. 개별훈련 발부러지 않음
- 경주캠퍼스예비군연대장**

헌법 13조에 의거 아래와같이 8

대 상 : 전 예비군 학생 및 교직원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자 (보류자)  
 미필보충역 (소집면제 처분자)  
 87년 1월 1일 이전에 전역한 예비역 (단 방위제대자는 포함)  
 이 교육에 응소해야함)

[illegible]

교육을 불참으로 처리합니다  
교육받은 사항을 정리 및

수령하여 주십시오.(87년 6월 9일한)

87년 8월 졸업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는 7월 4일까지 여

1987학년도 본대학원 연  
은집(제17집)을 발간하고  
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  
이다.

대학원 연구논집 (제17집)

- 가. 대 상 :
- ① 대학원 재학생 (석·박사과정)
  - ② 본교 시간강사  
(본매 학원 출신자)
  - ③ 본교의 조교
- 나. 원 고 매 수 : 200자원 고지 120매  
(의 (도표 포함))
- 다. 원 고 제 출 부 수 : 인쇄 용 원 부 1부  
심사용 부분 3부 (논문 초록 및 도  
표 포함). 제 4부
- 라. 원 고 제 출 마감 : 1987년 8월 31일  
(제 요 일)
- 마. 제 출 처 : 대학원 교학과

린 논문투고요령을 참고하시거나  
원 교학과(구내 2253, 2254)로 문  
신기 바랍니다.

1987년 5월 1일

[illegib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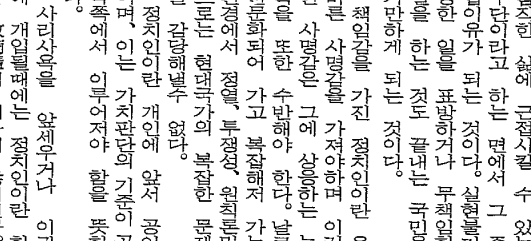
노력에서 신뢰찾아야

책일성이란 정치인 스스로



한국의 안년 것으로 어떤 행  
위와 관련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 좋은 기록이 없다. 여기

강해이 하며, 이는 도덕적 수  
근면하며 검소해야 함을 뜻  
나.



## 제25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입선자명단



- |               |                |
|---------------|----------------|
| 파죽썰 (대구경원교 2) | 박지열 (정의여교 3)   |
| 최영관 (보성교 2)   | 백우연 (정의여교 3)   |
| 변윤수 (호성교 2)   | 최신환 (광주석산교 3)  |
| 안병걸 (함양교 3)   | 최홍산 (광주석산교 2)  |
| 이성미 (광양교 3)   | 최형준 (광주석산교 3)  |
| 이윤희 (회재원교 3)  | 박승일 (광주석산교 1)  |
| 주정열 (대구교 2)   | 김광세 (부산통상교 3)  |
| 김갑광 (대평교 3)   | 구학수 (부산통상교 2)  |
| 김길수 (대평교 3)   | 김두원 (광주칠곡교 3)  |
| 김덕순 (구례여교 3)  | 김기정 (광주교 3)    |
| 주미열 (경기여교 2)  | 유선식 (취문교 3)    |
| 순동희 (부산통상교 2) | 이희정 (부산통상교 3)  |
| 박기주 (영천원동교 3) | 한현이 (무주교 3)    |
| 이준호 (경기교 1)   | 우경철 (대전성일여교 3) |
| 신상태 (경기교 1)   | 김동주 (금산연교 2)   |
| 주달수 (경기교 1)   | 김지현 (성덕교 2)    |
| 제근범 (경북교 3)   | 조일훈 (경북교 2)    |
| 김용택 (경동교 3)   | 유진석 (경북교 2)    |
| 이재훈 (경동교 3)   | 안지영 (대원일교 3)   |
| 김복선 (경동교 1)   | 정희원 (경주문화교 3)  |
| 최진호 (덕수상교 2)  | 서상준 (경주유요교 3)  |
| 조은주 (송의여교 3)  | 김미영 (사해지외교 2)  |
| 한정하 (송의여교 3)  | 윤미연 (사해지외교 2)  |
| 신길은 (송의여교 3)  | 박인우 (전남가치평교 1) |
| 하정하 (송의여교 3)  | 정혜원 (화원교 3)    |
| 안열남 (송의여교 3)  | 김상진 (금산교 3)    |
| 유세홍 (충동교 3)   | 김정형 (대구대우교 3)  |
| 이준태 (부산교 1)   | 이영준 (대구대우교 3)  |
| 정희원 (정미원교 3)  | 김병민 (전남가치평교 3) |
- 이성환명

190

- |              |                |
|--------------|----------------|
| 김태일 (하동여고 3) | 신동렬 (공주고 3)    |
| 문상원 (부산공고 3) | 정해룡 (전남기계공고 3) |
| 최용수 (부산공고 3) | 김종민 (전남기계공고 1) |
| 감희찬 (부산공고 3) | (이상 7명)        |

\_\_\_\_\_

- |               |                |
|---------------|----------------|
| 홍현수 (인천선교교 3) | 이성민 (정의여교 2)   |
| 김일혁 (광명교 3)   | 석은정 (정의여교 2)   |
| 오지희 (영동초여교 3) | 정용환 (대구덕원교 1)  |
| 박성주 (영동초여교 3) | 이영희 (대신고 3)    |
| 나은옥 (사북교 2)   | 서영준 (전남기계중교 3) |
| 김수경 (남원교 3)   | 이현남 (합평중교 2)   |
| 고수리 (무산초교 2)  | 최동성 (마산중교 3)   |
| 장윤희 (정의여교 3)  | (이상 15명)       |



- |                |              |
|----------------|--------------|
| 양운철 (면복교 2)    | 권영주 (정의외교 3) |
| 양현범 (남양중교 3)   | 정순옥 (정의외교 3) |
| 양희정 (남양중교 3)   | 박희복 (정의외교 1) |
| 양두선 (안남교 3)    | 호준석 (함양교 3)  |
| 양영진 (한림교 1)    | 이희민 (제물포교 1) |
| 장경애 (수원외교 3)   | 이경남 (성통교 2)  |
| 장현숙 (강남외교 1)   | 장은미 (부동포교 1) |
| 장영진 (거제교 2)    | 이정준 (관서교 3)  |
| 장영준 (구마외교 3)   | 신경아 (나성교 1)  |
| 장영선 (회계원교 2)   | 김진용 (우성교 1)  |
| 장하선 (하동교 3)    | 이홍지 (선정교 3)  |
| 장수진 (영정원동교 1)  | 정승주 (매곡외교 1) |
| 조수 (정삼교 3)     | 최은희 (안성외교 3) |
| 조수옥 (부산성모외교 2) | 최화순 (경곡외교 2) |
| 조수화 (경서외교 2)   | 박소연 (경곡외교 2) |
| 조미숙 (동지여삼교 3)  | 심임진 (강일외교 3) |
| 조윤희 (경동교 3)    |              |
| 조유진 (송산외교 1)   | (인사 34명)     |

동대신문사

불교 인접학문의 연구와 불교  
의 세계성을 위해 국내외 석  
61명의 논문들을 모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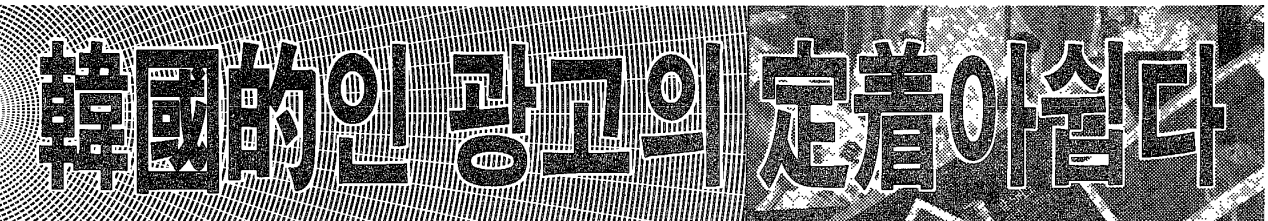
중국대하  
출판

廣告市場 개방에 대한 국내광고업계의 대응방안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1. 도입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우리 체질의 廣告文化개발 주력해야

의국 代打社의 국내영향 최소화가 과제  
産·學協同으로 전문廣告要員 양성 시급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내부의 개관화와 출판의 체계화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제시 주목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李 相 培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보완없는  
개방은 국내 광고 업계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새로운 형태의  
문화종속이 우려된다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Stroke of State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한국의 언론·광고·대중의 관심

三星 (Samsung)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Samsung monitor and text promoting its technology and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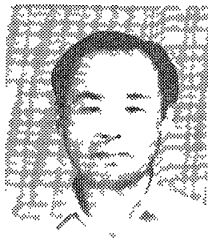


## 여성의 가족법적 지위

I

가족법 개정(1987.5.26)은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 韓 國

<법률전문가·김영환>

# 여성 “법률에선 평등한가”

## 통전산재 家族法 개정 시급한 실정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 절반의 사람

하고 폭력은 대중운동으로서 전개해  
나가기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본誌에서는 여성운동에 관한  
특집을 마련, 특히 法的인 측면과 한  
국여성운동사의 측면에서 기존의 문

<편집자註>

1. 김민혜

2. 김민혜

3. 김민혜

4. 김민혜

5. 김민혜

6. 김민혜

7. 김민혜

8. 김민혜

9. 김민혜

10. 김민혜

11. 김민혜

12. 김민혜

13. 김민혜

14. 김민혜

15. 김민혜

16. 김민혜

17. 김민혜

18. 김민혜

19. 김민혜

20. 김민혜

21. 김민혜

22. 김민혜

23. 김민혜

24. 김민혜

25. 김민혜

26. 김민혜

27. 김민혜

28. 김민혜

29. 김민혜

30. 김민혜

31. 김민혜

32. 김민혜

33. 김민혜

34. 김민혜

35. 김민혜

36. 김민혜

37. 김민혜

38. 김민혜

39. 김민혜

40. 김민혜

41. 김민혜

42. 김민혜

43. 김민혜

44. 김민혜

45. 김민혜

46. 김민혜

47. 김민혜

48. 김민혜

49. 김민혜

50. 김민혜

51. 김민혜

52. 김민혜

53. 김민혜

54. 김민혜

55. 김민혜

56. 김민혜

57. 김민혜

58. 김민혜

59. 김민혜

60. 김민혜

61. 김민혜

62. 김민혜

63. 김민혜

64. 김민혜

65. 김민혜

66. 김민혜

67. 김민혜

68. 김민혜

69. 김민혜

70. 김민혜

71. 김민혜

72. 김민혜

73. 김민혜

74. 김민혜

75. 김민혜

76. 김민혜

77. 김민혜

78. 김민혜

79. 김민혜

80. 김민혜

81. 김민혜

82. 김민혜

83. 김민혜

84. 김민혜

85. 김민혜

86. 김민혜

87. 김민혜

88. 김민혜

89. 김민혜

90. 김민혜

91. 김민혜

92. 김민혜

93. 김민혜

94. 김민혜

95. 김민혜

96. 김민혜

97. 김민혜

98. 김민혜

99. 김민혜

100. 김민혜

## 성종족.사회경제적 소외근거를 이탈정립통한 부당한 정치투쟁여구돼

### 전개향상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지위를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법은 1987.5.26  
일부터 시행된다.

## 개쥬얼 복지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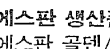
— 해랑이 생산하는 경제적 활동복지 —

1956년 만점을 생산으로 출판한 해랑은 30년이 지난  
오늘도 오직 만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품목만이라도 가장 뛰어난 제품을 만들  
겠다는 일념하에 다양한 변화를 꾀하는 해랑은 문화의 주도적인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개쥬얼 웨어의 소재를 개발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랑은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이 일품으로서  
유복함, 풍기상, 방음성이 뛰어나고 값싼 옷에서  
개쥬얼 복지의 대명사로 이름 나 있는 경제적인 활동복지입니다.

버팔로 생산품목: 코넬/우단/인디고 데님/칼라데님/  
산드레이/크림을 코넬/크림을 데님/스타일 데님/  
핑크/나뭇가지/면마방직/크림을 핑크



Spin은 고신축성 작지르며 미려한 활동 지체에서도  
구김이 가지않고 본래의 산뜻한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산뜻한 착용감에 기능성, 활동성 또한  
높아 발달한 젊은이에게 더욱 좋은 복지입니다.

에스판 생산품목: 에스판 코넬/에스판 데님/에스판 인디고데님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 번역은 두 언어에 대한 고차원적인 숙달을 의미

머리말

현대의 한국문학을 번역문화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번역의 홍수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외국어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여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번역은 학문의 지속성과 정보시대의 다변화로 인하여 필수적인 지식의 한 부분이 되었다. 또한 번역의 수준도 통시통역의 수준을 넘어 더욱 과학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산언어가 이미 오래전에 기계번역의 영역으로 넘어간 전문적 과학기능이 되었고, 전산언어의 번역조차도 기계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번역이나 일산언어번역(회화)이 아니라 언어학과 문학이론 일반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여 번역의 타당성과 가능성, 그리고 번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번역이론의 언어학적 측면  
기계번역이나 단순한 용어번역을 넘어서 문학작품(소설, 시, 희곡 등)의 번역은 언어학 혹은 사회학적 접근을 포함하여 번역을 논할 때는 언어학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언어학적 고찰은 순수언어학도의 입장이 아니라 문학도의 입장에서 언어학의 흐름을 살펴본 사람이 George Steiner이다. 문학비평가 Steiner교수는 언어학에 있어서 「번역생성이론과 다른 언어론들과의 갈등은 결국 언어가 잘 정돈된(Well-defined) 체계나 잘 정돈되지 않은(ill-defined) 체계냐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Steiner의 말은 지금까지 언어학 일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논쟁이 언어의 보편성(linguistic universality)에 대한 강조와 언어의 상대적 특성을 개별성(Relativistic theory)에 대한 강조로 요약됨을 잘 구별하여 준다.

언어학의 두 이론들중에서 번역이론의 타당성과 가능성은 모든 언어가 갖는 보편성의 강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Noam Chomsky의 「변형생성이론」은 번역학의 분야에서 가장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학 일반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개별성에 대한 강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언어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두가지 이론은 전혀 접합점을 가지지 못하는가? George Steiner는 언어학에 나타나는 이러한 논의를 극단으로 분류하면서, 문학가(시인이나 소설가)는 언어가 잘 정돈되지 않은 체계(ill-defined System)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Steiner는 「문학인식은 보편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학이론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러한 Steiner의 결론은 너무나도 편협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Steiner의 견해는 New Criticism과 Structuralism의 극단에서 나타나는 맹점이라고 파악된다. 일반적인 인식처럼 문학의 이해는 개별성만을 가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인식한 나뭇의 예술실험행위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Steiner와 같은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국문학연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세계인의 정서적 공

감대를 형성시키는 예술적·철학적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학이론은 일부 철학이론의 탁상공론과 마찬가지로 삶의 방위에서 어긋난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학과 문학이론에서 나타나는 논쟁에 대한 극단적인 논리는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대상(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내용과 형식의 논의처럼 동일한 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Vygotsky는 「한 단어의 의미는 너무나 밀접한 사고와 언어의 혼란물이기 때문에, 언어의 언어현상인 사고현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하튼 의미없는 언어는 공허한 소리이므로, 의미는 언어의 기준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번역이론이 언어의 보편성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언

시도로서 두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New Criticism과 Structuralism의 근본이론은 문학비평가(독자)의 연구대상은 작가가 아니라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관찰할 때, 이러한 이론은 혼란스럽게 된다.

흔히 New Criticism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Eliot는 작품의 강조가 작품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이 전시대의 작품들 또는 동시대 작품들과 갖

는 연관성을 전체적인 유기적 구조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관성을 Eliot는 「전통」으로 보았다. 따라서 작가의 위치를 신의 위치만큼 상승시켜 작품을 신이 창조한 사물처럼 평가한다면, 문학작품을 절대적 가치로 평가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이 평가된다면 문화비평은 존재할 필요가 없

다. 차라리 이는 언어에 「불사한다」고 하고싶다. 시인들은 언어를 이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Sartre의 이러한 시에 대한 정의는 시가 본질적으로 음악과 미술을 배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에는 끊임 없는 일상언어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적 언어(Poetic diction)가 존재함이 사실이

성처럼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번역의 문제와 연관지어 개별성과 보편성을 문학의 대표적 장트인 시와 소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시와 소설의 구분  
언어와 문학이 갖는 이중적 측면에서 시를 소설과 비교하면, 시는 보편성보다는 특수성, 의미보다는 언어현상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Sartr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차라리 시는 전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다. 시와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번역이론처럼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조화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소설을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형식에 치중된 반면, 소설은 보편성과 내용에 치중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4. 번역가의 기능과 역할

본고에서 번역가라함은 시의 번역가보다는 소설의 번역가에 더 적용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번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표현구조(언어의 개체성)보다는 심층구조(언어의 보편성)의 전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개체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번역가의 역할을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체계로의 번역은 두 언어에 대한 고차원적인 숙달이 요구된다. 이것은 오랜 문학의 역사적·문화적 습성으로 인한 의미체계로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둘째로 번역가는 독자(문학 비평가)의 기능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판적이면서 창조적인 문학 비평가로서의 기능을 일컫는다. 설명하면 독자의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기능은 언어와 문학의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활용(내지는 조화)하는 통찰력을 말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문학작품의 개체적 본질을 살펴보고 동시에 전체적인 유기적 구조와 연결되는 체계를 발견함으로써 얻어진다. Susan Bassnett-McGuire는 문학작품의 개체가 그 언어의 전체문화와 인류문화에 연관되는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개체적인 문장으로부터 단어들의 전체적인 질서까지의 모든 문화 단위를 체계(system)의 개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문학장르상 개체적인 작품들을 조사할 수 있고, 연관된 체계들로서 문학 전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더 커다란 인간문화체계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Bassnett-McGuire의 말은 번역가의 독자로서의 기능인 개체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세계로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독자로의 비판적 기능과 함께 작가로서의 창조적 기능이다. 즉, 번역가는 독자인 동시에 작가이어야 한다.

Bassnett-McGuire는 「독자는 작품을 만들어낸 이후로 배제되었던 요소를 발견해야 하는데, 이것은 텍스트가 시대와 장소가 동떨어진 문화체제에 속할 때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을 번역가에게 적용할 때, 번역가는 작품을 배제된 요소까지도 번역작품에 융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언어체계로의 작가가 오랜 습득기간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번역가에게도 문학작가로서의 오랜 습득기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위에서 열거한 번역가의 세가지 기능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가의 기능이 완수될 때, 번역작품이 번역된 언어의 문화체계내에서 문학작품이 갖추어야 할 「생명력」을 갖는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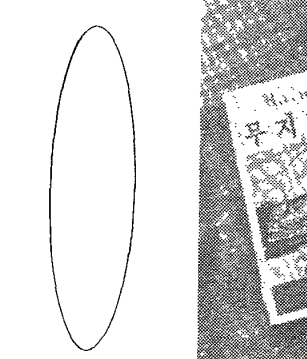
맺음말

지금까지 번역이론과 번역가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번역이 단순한 언어의 습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충요인으로서 지적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세계관」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본 것처럼 언어학과 문학이론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특수성(개별성)과 보편성(역사성), 그리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세가지 기능은 현재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기능이라고 본다. 따라서 번역가의 세가지 기능이 외국문학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외국문학연구가 주제적으로 진행되는데 필수요소라고 보겠다.

張 時 基  
<대학원·영문과석사과정후>

## 번역의 이론과 번역가의 역할



### 역사적·문화적 습성으로 인한 의미체제 완성

문학의 이해는 개별성만을 가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인식한 예술 실천행위로서 인식되어져야 한다.

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형이상학적 문제임을 내포하는 것이 라 하겠다.

2. 번역이론의 문화적 측면  
언어의 양면성과 마찬가지로 문학에도 두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작품의 양면성은 문학이 음악과 미술처럼 순수예술적 요소를 간직한다는 것과 사회과학적 요소도 간직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즉, 문학의 매개체인 언어는 음악이나 미술의 매개체인 선율이나 색깔처럼 본능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약속과 교육적 소산이라는 주객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전자는 주관점을 두는 문학이론이 New Criticism과 Structuralism이라면, 후자는 객관점을 두는 문학이론은 문학사회학이론과 Marxism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문학에서의 이러한 두가지 흐름은 전혀 접합이 불가능한가? 이러한 접합의

독자는 작품의 비판적 수용자가 아니라 일반적 흡입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반대로 문학작품은 근본적으로 작가와 독자의 주객적 약속을 기반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다. 즉,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독자를 문학에서 상대적 대상으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때문에 Susan Bassnett-McGuire는 「20세기 문학연구에서 가장 위대한 진보 중의 하나는 독자의 재평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론의 가장 큰 공로자들중의 한 사람이 Sartre이다. Sartre는 「독자의 창조력」을 상당히 중시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작품은 독자를 위한 작가의 제시(호소)이며,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은 독자의 창조력(상상력)이고, 독자에 의하여 작가는 예술가로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자에 대한 가치평가의 증가는 그만큼 번역의 논리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개별성은 언어의 개별

성 때문에 번역가에게는 시의 번역가보다는 소설의 번역가에 더 적용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번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표현구조(언어의 개체성)보다는 심층구조(언어의 보편성)의 전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개체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번역가의 역할을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체계로의 번역은 두 언어에 대한 고차원적인 숙달이 요구된다. 이것은 오랜 문학의 역사적·문화적 습성으로 인한 의미체계로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둘째로 번역가는 독자(문학 비평가)의 기능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판적이면서 창조적인 문학 비평가로서의 기능을 일컫는다. 설명하면 독자의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기능은 언어와 문학의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본고에서 번역가라함은 시의 번역가보다는 소설의 번역가에 더 적용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번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표현구조(언어의 개체성)보다는 심층구조(언어의 보편성)의 전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개체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번역가의 역할을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체계로의 번역은 두 언어에 대한 고차원적인 숙달이 요구된다. 이것은 오랜 문학의 역사적·문화적 습성으로 인한 의미체계로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둘째로 번역가는 독자(문학 비평가)의 기능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판적이면서 창조적인 문학 비평가로서의 기능을 일컫는다. 설명하면 독자의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기능은 언어와 문학의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시국성명한 정태혁 教授를 만나

### 東岳路

『4.13정부호헌선언은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켰고, 중국에는 민족발전의 계기를 저해하는 오류를 범하고말았다』 지난 8일 시사각각으로 어두워져간다는 좌파의 정치상황에 현존인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 학문자적 양심의 발로속에 현시국을 진단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던 鄭泰赫(현월과)교수.

평소 記者는 한낱 추상적인 논리의 뱀가 현상의 피안을 내다보며 비트겐슈타인같은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曲學阿世의 학자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信念으로 대담할수있는 소크라테스를 아워워했던 까닭에 현하의 정치현실을 제도하려는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의 懸念의 목소리가 메달랐던 大地에 내린 빗물

을 나르고 구호를 외치던 어느 여학생의 눈빛을 애써 외면만을 구하지는 않을 우리들의 심배요, 스승임을 분명 확인했다.

철학자로서 분단된 현실의 정치상황속에서 민족의 장래를 위한 제언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이메를보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세계가 분열된 2대 사조로 문제까지



고있고 이로인해 한민족의 사상적 갈등과 민족의식의 분열및 회박등 현재를 도말랐던 大地에 내린 빗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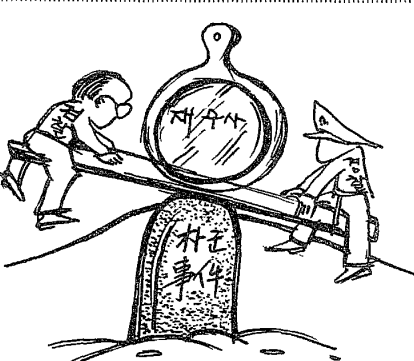
“자유, 민주를 누리지못한 민족의

숙원은 民聲으로서만 해결될 뿐

기과도 같았기에 그의 연구로 발견을 올렸다. 지식인은 현실을있는 그대로 바라볼수 있는 감각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고 잘못되었을때 비판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인이라고 전제하는 鄭교수는 『오늘날 분단된 우리현실에서 민족의 숙원이며 과업인 통일조국을 지향하는 이 시점, 그리고 국민대중의 일상적 인간존엄과 기본권이 민주제도를 역행하는 정치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당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최우선의 지상과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그야말로 민주화실현이 아니겠는가?』라며 한층우 반듯한는 鄭교수의 초로의 눈빛에서 며칠전 보았던, 진정한 이땅의 민주화정취를위해 최후판 가스를 달아가며 돌과 화염병

저르는 것으로 부터 이의 통일내지는 지양될수 있는 사상정립운동이 전개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뒤 예를들어 공산주의는 그의 이해와 다양한 사상적 지식을 가지고 극복할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정립없는 공산주의의 이해는 극단적인 레드 컴플렉스에 빠지는것과 같은 이치임을 역설한다. 鄭교수와 엮게된 풀이난 호헌철폐를 주장하던 당시에 들어왔던 스님들의 대가들 학내문제를 주고받은 다음 말을 맺고 교수회관을 나섰을때 오열의마바지에 때도를 빗발들을 맞으며 어둑미만한 먹구름간 하늘과 교내 곳곳에 널려있는 붉은 깃발을 번갈아 바라보았을때 記者의 마음은 웬지 우울하기만 했다. 지나친 忌避였을까? <유경진기자>

### 東國漫評



◇ 장난치곤 끔찍하군!

수석농민



## 青春의 축배! 애플와인 파라다이스

우리, 오늘밤엔 축배를 들자 100%순수와인 파라다이스.

맨 처음 한잔을 권했을때  
떨리는 가슴,  
맨 처음 한잔을 받았을때  
떨리는 손,  
가슴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애플처럼 싱그럽게 와인처럼 순수하게—  
청순의 꿈은 아름다운가 — 애플와인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100% 사과즙으로 만든 알칼리성 순수 와인입니다. 파라다이스는 고급사파만으로 빚은 순수한 알칼리성 애플 와인입니다. 한방울의 물이나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100% 사과즙만을 넣어 발효시킨 파라다이스! 이제부터 언제나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파라다이스로 마음껏 젊음의 꿈을 가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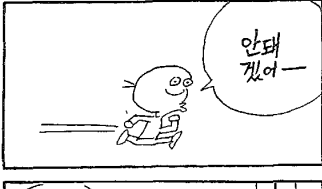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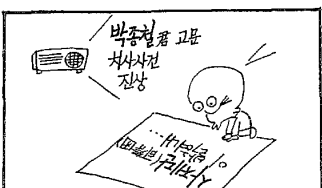


PARAD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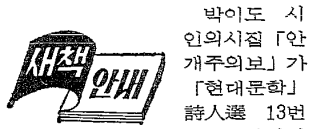
# 여로니모

오 할  
〈38〉



## 안개 주의보

朴利道 著



박이도 시인의 시집 『안개주의보』가 『현대문학』 13권 제1호에 발표되었다. 자연의 신비와 경이에 대해서, 세상의 복잡미묘함을 간명하게 정리하고자한 이 시집은 제1부 「수평선을 바라보며」를 모두 3부로 나누어 총 70여편의 작품을 실었다. <현대문학사 149면 2,000원>

## 사랑과 결혼의 법칙

이상석 著

친자와 양자의 상속문제, 국제결혼, 사실혼, 재판이혼 등 남녀간에 발생하는 여러 제문제들을 법률적 측면에서 사례별로 나누어 폭넓게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법률신문사 344면 5,000원>

## 불교의 정치철학

정승석 著

다른 정치체제와는 달리 삼의 불교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불교의 본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테라바다의 팔리경전」에서 드러나는데로 검토하고 있다. <대원정사 221면 2천5백원>

80년대의 민중시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80년대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른바 「시의 시대」 「소설의 빈곤」으로 일컬어지던 80년대 초반의 그 문학상 황은 진정 제대로된 평가였으며, 그 평가가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지금은 어느만큼의 내적 성숙을 가져왔는가.

## 이달의 시

이 황은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완벽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답답하는 것이 조금은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이 황은은 필자의 게으름에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변명을 하자면 민중문학 전반에 걸쳐 최근 이상한 조짐을 지니고 드러나는데 바깥까지 못한 모습이 적지 않게 필자의 정리된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무리가 아니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만한 독자들은 수긍할 것이다.

이 황은은 시의 경우에 있어서 70년대 저 문화주의자들이민중·민중문학을 향해 「문학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적어온 공격을 퍼부어왔던 바로 그 모습처럼 최근 민중시 계열에서조차 「시의 문법」을 주장하고 있는데서 단적으로 증명되듯이 작가의 이념적 경향성의 소시민성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소설의 경우에는 더욱이 각하게 소시민화여로의 주관주의적 편향이 무반성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하루아침

# 자기검증의 시모음집

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중지향적 문학인들이 민중적 자기 인식을 획득하기 위해 그간 얼마만큼 실천적으로 노력해왔는지도 하나의 필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시인 박노해의 총력도 「민중지향적」 시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무력감을 주었을 것이고, 비공식화간된 김남주의 「항로」에 부치는 노래 (혹은 「노동의합」) 가 보여

바로 이 점에서 시인 유재현이 지니는 미덕이 있다. 그의 시는 필자를 높이 세우지도 않으며 관념적인 허장성세와도 이미 거리가 멀다. 그의 시는 겸허하고 침착하며 항상 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마치 파도가 배중에 의해 요란해도, 수십 겹은 늘 가득찬 어떤 조용한 내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다시 손에게」고 할 만큼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검증의 시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이러한 점은 대화시절 야학에서 가르치던 노동자를 다시 만나서 자기검증을 토로한 그의 「갈치·2」라는 시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民衆詩 계열에서조차 「시의 문법」을 주창하고 있음은 곧 作家의 이념적 경향의 소시민성을 입증한셈.”

주는 치열한 전투적 정치성도 많은 부분에서 부당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혼란스런 와중에 필자가 유재현의 처녀시집이자 자기 삶의 실천적 결정을 담고 있는 그의 「아메리카들소」를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느 분야든 정확한 현실인식에 근거하지 않은 좌우편향의 공식주의가 활보할 하기 마련이다. 이월 배, 정직한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의 내용을 가진 문학작품은 일견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말의 원래의 미에서 바람직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다.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각하게 소시민화여로의 주관주의적 편향이 무반성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적인 모습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다. 그 이유는 근래에 들어 그의 운동론적 실천경향을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거듭난 투쟁을 했으며 그에 대한 응분의 결과로 직장에서 쫓겨났다. 아니 빼앗겼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즉,

조국이 내게 준 은혜는 병든 민주주의와 물결치, 낡은 교과서와 분단을 묶은 얼룩진 분열증세— (풀잎)

와 같은 인식하에 있었기에 그의 실천적 결단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까지도 「나를 씻지 못하는 내게 (...)」를 썼다. 그는 이것까지도 「나를 씻지 못하는 내게 (...)」를 썼다. 그는 이것까지도 「나를 씻지 못하는 내게 (...)」를 썼다.

예전 선생 대접을 했지만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져도 망치고 싶었다. 흥서하여도 아니 차라리 내 적의 속에 나를 단단히 넣자.

나는 너보다 더 배우고, 더 쉬운 일을 하고, 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아니 또 그 생활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면서 흥서하지 말아다오 차라리 내 적의 속에 온전히 남고싶다. <갈치·2>

이 고층스러운 자기검증은 「세월은 우리에게 조금도 공평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에 참다운 민중적 당파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 “해넘어간지 얼마된다고 집에갈 생각부터하는거야 우리가 빼앗긴 한 시간은 누구한테로 가는것일까”

고 늙은 엄마를 대신해 자기가 家로 돌아가고 싶었다. 낮에는 독공소에서 일하면서 야간학원에서 잠고시 준비까지, 여간 기록하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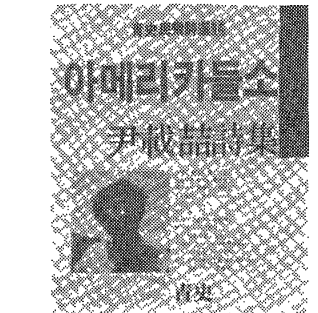
새벽이 되니까 요란한 오로바 이 엔진과 굵은 사내 목소리가 정적을 가른다. 『야, 월민아! 지금 몇시네 늦잖아!』 오로부터 한시간 빨라졌잖아! 월민이는 부시시 일어나 한시간 도둑 맞았다고 투덜대면서 세수도 않고 뛰어나가 버렸다.

정화는 아차 시간이 빨라지니까 잠을 줄여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이제야 삼터타임인가 평가하는 것이 이해 되는듯 싶었다. 모처럼 휴일이라 하루종일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저녁 8시가 되어도 밖이 환한것 같아 이상했다. 라디오를 들으니 뉴우스에서 또 그 소리다. 『삼터타임제를 실시하여 근면한 생활로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우 여가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발전기회를 확대하며 또 일과시간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각국 시간대와 조화시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한다.

여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내에는 올림피아라는 세계적인 대축제에 서울에서 열리는데 미국으로 시간대를 맞춰야한다가 결정이 났을 때는 제2인기보다. 가장날도 올림피아만 치르면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어 공짜로도 모두 커져서 잘살게 된다고 그러했는데, 그것만 잠깐 더 못났다고 무슨가? 올림피아 하고

나면 우리들도 이 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수 있다는데...이날날 부지런을 따우고 일어나. 하품을 손으로 가린채 공장으로 갔다. 5월엔 정신을 멎고나면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은 한시간 달라서 그렇지 유난히 더 졸립다.

어제는 P.C.B에 트랜스를 한 시간에 120개까지 꿰었는데 새로운 생산계정이 사장한테 잘 보일려고 그러는지 시간당 생산량을 150개나 하라면서 더 타달았다. 저녁 9시가 되어 끝난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종도 안친다. 10분이 지나서야 반장언니가 계



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이틀동안 혼자라도 좋고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도 좋고/할을 들어 먼저안으로 태우러나」(「저들만 겨우나루고 가고 싶네」)에서처럼, 자신의 의지를 토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현재 그의 모습일 것이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여러 진신들을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의 필적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결단을 통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절곡의 역사 속을 헤쳐 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자기검증을 전혀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시인이며 정발은 뿌리박고 삼터 뿌리박고 벌어서는 일임을 알고 있는 그 이기에, 그의 시적 전망에 대해 필자는 많은 기대를 건다.

한우 우리도 이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면서, 그의 시가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자.

## 백진기

<문학 평론가>

장한테 물으니까 『해 넘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집에갈 생각부터해?』 그러니까 생산량이 항상 그 모양이지!』라며 단언하라는 듯이 호통을 친다. 예고하면 반발이 있을까봐 쉬는 시간도 없이 잔업잔업이다.

정화는 속한 태운다. 『내일 일마 생산이라 부랴부스 사러 남대문 시장 가야하는데...』 밍다. 한시간 억지로 더 일하게 하는 계장도 삼터타임제도 그림 그 수많은 노동자인 우리의 빼앗긴한 시간은 누구한테로 가는것일까?

## 이승민

<문화대 영문과>

## 恨

하면서도 사건당사자들의 뱃심에는 불탈뿐이다. 더구나 이미 고문치사로 구속된 2명의 수사관에 대해서조차 공갈·협박이 있었다는 풍문이다. 사건은 진정한 배후의 인물들 은폐한 채 정적 미궁에 빠져들고있는 건 것이다. <경찰의 고공이 한 두 번 울음』이 아니었음은 이미 증명 되었다. 최근 형제복지원의

# 문화소식

## 「제2회 민중극학교」개강

오는27일 그림마당 민에서 민중극에서는 「전라북도 풍농곳을 중심으로 풍농곳의 정의, 풍농곳의 풍농곳의 2회 민중극학교」를 오는27일 그림마당 민(인사동 소재)에서 열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7시30분.

## 「세발 자전거」공연

오는28일, 29일 중앙대서 부산산업대 연영과 제2회를 졸업연인 서울초청공연이 오는 28일, 29일일간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세발자전거」로 무대에 올려진다. 공연시간은오후 7시.

## 「총각파티」공연

오는29일부터 첼프예술마당에서 극단 첼프에선 패티 차에프스키 원작의 「총각파티」를 이상화 각색으로 첼프예술마당(여의도 백화점 6층)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7시30분, 금·토·일요일 오후 4시30, 7시30분.

## 「서편차리 아라바이트」공연

오는6월2일부터30일까지 섀터필라에서 극단 가요에서는 1백18회정기공연으로 남경희와 유종필연출을 「서편차리 아라바이트」를 섀터필라극장극장 무대에 오는6월2일부터 30일까지 올릴예정이다. 공연시간은 오후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



재학생여러분의 참신한 문예림의 노력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시창: 15매내외  
△시·평론·수필·장편·문화비평 (10매내외)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됩니다.



코오롱은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한 기업의 의지로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빛의 보람으로 실현되는 사훈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보람이란 정의적이고 열의를 지닌 인력과 그들의 가능성과 이상을 코오롱의 일터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는 연구분야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코오롱 구성원의 각 분야에서 코오롱의 인재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코오롱의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재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은 참여의 보람과 더불어 젊음의 도전과 정의의 빛이 빛의 보람, 성취의 보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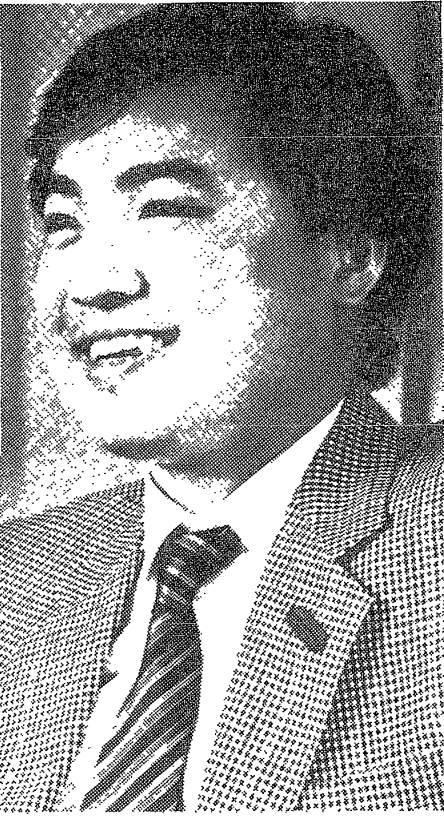
이강 조 경 호

# 참여의 보람



아는날, 신입사원인 나에게 우리회사 앞으로 펼쳐질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라는 뜻밖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 수습사원이라는 딱지를 막 벗어버린 행방이 신입사원에 불과한 나에게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0년이나 대학선배인 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까닭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신입사원을 과감하게 기용한 회사측의 배려에 대한 끝없는 의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성공적인 업무의 완수목지 앞에 그 당시 선배와 같이 참여했던 소중한 경험이 어떤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감을 갖게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참여의 보람이 있는 직장... 사람을 뽑아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람의 일터... 바로 나의 일터 코오롱은 인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아닌 행동으로 제시해 주는 보람의 장(場)입니다.

사원 김 태 화



코오롱은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한 기업의 의지를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빛의 보람을 실현하는 사훈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